



보도 시점 2026. 6. 18.(목) 11:00
6. 19.(금) 조간

배포 2026. 6. 18.(목) 09:00

“곤충식품 보고 먹고” 한자리에서 만나는 우수 곤충식품

- 농촌진흥청, 19일 청주서 ‘2026 곤충식품 비엔날레’ 열어
 - 곤충식품 전시·시식, 우수제품 선정해 시상도
 - 곤충단백질 공식 애칭 ‘파워프로틴-아이(I)’도 연계 홍보

※ 일시 및 장소: 2026. 6. 19.(금) 14:00, 청주오스코 중회의실(205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6월 19일 청주오스코에서 2026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 ‘2026 곤충식품 비엔날레’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곤충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곤충 원료 함유 가공식품을 선보인다.

국내 주요 곤충식품 제조·판매 기업들이 참여해 기업별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가루, 과자(월병),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곤충식품을 시식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곤충식품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 공정 등이 상세히 적힌 안내 자료를 비치해 곤충식품 저변 확대에 나선다.

또한, 곤충식품 참여 기업이 출품한 제품 가운데 내외부 전문가와 협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제품 9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대상 1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 2팀에는 농촌진흥청장상, 우수상 3팀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상이 수여된다. 특별상으로 곤충산업중앙


회장상, 대한잡사회장상, 식용곤충생산자협회장상이 각각 주어진다.

농촌진흥청은 곤충단백질 공식 애칭인 ‘파워프로틴-아이(I)’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파워프로틴-아이’는 파워프로틴에 곤충(Insect)의 ‘아이(I)’를 더해 붙여진 이름이다. 곤충단백질이 가진 고단백·기능성 이미지는 부각하고 소비자의 심리적 거부감은 낮추자는 취지에서 이름 짓고 지난해 확정했다.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 박홍현 과장은 “이번 행사는 곤충식품에 가졌던 거부감을 해소하고 식품으로써 가능성을 확인하는 홍보의 장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곤충식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6 곤충식품 비엔날레

담당 부서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	책임자	과 장	박홍현 (063-238-2931)
		담당자	연구관	조유영 (063-238-2975)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호				

□ 행사 개요

- 목적 : 곤충식품 산업 활성화, 소비자 인식 제고
- 일시 : '26. 6. 19.(금) 14:00~17:00
- 장소 : 오스코 205호 중회의실(청주,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

□ 진행 방식

- 참가대상 및 제품 범위
 - 참가 자격: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제조·판매 중인 식품기업 및 농가
 - 제품 범위: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곤충 원료 함유 가공식품 전반
(가루, 스낵,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 참가 규모: 전시 제품 중 1개 제품을 출품작으로 제출
- 전시 및 시식 운영
 - 전시 부스: 기업별 독립 부스 운영 (규격: 1.8m×0.5m 기본 제공)
 - 시식 코너: 방문객 대상 제품 시식 및 홍보 활동 허용
 - * 행사장 입구 곤충요리 시식 행사 별도 진행(월병, 음료, 샤브레 등)
 - 제품 정보 제공: 원재료, 영양성분, 제조 공정 등 안내 자료 비치 권장

□ 심사 및 시상

- 심사위원: 내부, 외부, 협회 등 10명
 - 심사시간: 14:20~15:20, 시상식: 16:30~
- 상장 : 9점(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1), 농촌진흥청장상(2), 국립농업과학원장상(3), 곤충산업중앙회장상(1), 대한잡사회장상(1), 식용곤충생산자협회장상(1)